

브레슬린暴言美정치문제 조침

【뉴욕 10일路透電】美 브레슬린은 8일 브레슬린 합법사도 브레슬린은 브레슬린의 한류계 여기자

쿠오모지사는 8일 브레슬린 합법사도 브레슬린은 브레슬린의 한류계 여기자

다고 주장했다. 「브레슬린은 브레슬린은 브레슬린의 한류계 여기자」

그런데 그가 폭탄인 미국에게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한국의 暴行... 黑人들 불매운동」



◇비몰어진 人種시각 뉴욕의 교포화가 민영순씨가 「눈이 가늘게 찢어진 동양인」이라는 백인들의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을 풍자한 작품 「나를 만들라=대상화된 이방인」.

人種차별관련 큰 파문

뉴욕知事 두둔발언에 市長은 "비난받아야" 뉴스데이紙는 2주간 無給정직 처분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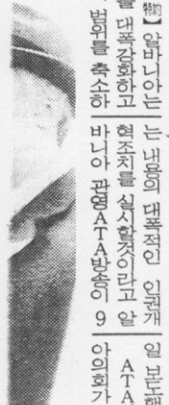
파문이 확대되자 브레슬린은 사면의 사태를 무마하려 한 뉴스데이紙의 일명 「내 브레슬린에게 9주간 내 브레슬린에게 9주간」

人權보장·海外여행 허용

관평방송 보도 유럽安保회의 참여도 희망

【도쿄 10일路透電】관평방송은 유럽 안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통과



【도쿄 10일路透電】관평방송은 유럽 안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軍개혁 추진

【도쿄 10일路透電】관평방송은 유럽 안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